

COP28 유치서 의대 설립까지...전남 현안사업 힘 실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해상풍력 제도 개선·한전공대법 등 전남 방문 문 대통령에 정부지원 건의 김영록 지사 “대통령 긍정 검토 답변”

한국에너지공단법(한전공대법) 제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전남권의 대 신설 등 전남도의 역점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방문을 계기로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신안 입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바람이 분다’ 행사를 위해 전남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여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현안은 ▲COP28 유치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해상풍력 제도 개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3월 중 국회 통과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 모두가 동시 화합, 국토 균형 발전, 낙후지역 의료 여건 개선,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명분에 부합하면서 사업 타당성 또한 갖췄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선 COP28 유치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전남도가 준비해온 국제대회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환경 협약으로,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 당사국이 모여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다. 전남도는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경남·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과 대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전남도와 합의 아래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서화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명분도 크다. 서울 시와 경기도 역시 “전남 개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정부는 COP28 유치 확정 시, 지자체 공모 또는 지정 방식으로 개최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정책적 결정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올 11월 COP26에서 한국 유치 신청 이전에 국내 개최 도시를 확정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해상 풍력 제도 개선 건의는 8.2기가와트(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신안 해상에 조성하는 전남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법)은 해상발전소로부터 내륙 해안선까지의 거리를 감안해 지원금을 산정, 지원한다. 8.2GW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30~35km 구간에 해당해 지원금 지급률은 24%로 현행 규정대로라면, 지원 총액은 1600억원 가량이다.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의 규모와 피해 어민 전업 대책, 보상 등을 모두 고려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전남도는 전망한다. 이에 전남도는 문 대통령 전남 방문 때 지원금을 현행 24%에서 60%로 대폭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지원금 지급률은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정부 판단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금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년 정상 개교를 위해선 오는 5월 초 대학 모집 요강 공고 전까지 늦어도 3월 중에는 한전공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일반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교사(校舍) 확보 문제까지 겹쳐 2025년 3월이나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문 대통령에게 “내년 정상 개교와 학교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우수 인재 확보가 관건인 만큼, 2월 임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이 제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권의 대 설립을 위해 정부, 의사단체의 협상 기구인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님께 건의한 지역 현안 사업 모두 사업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께서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신 만큼 지역 현안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하게 위기 극복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해제정부가 선별지급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선별지급이나 보편지급이나

에 대한 딱 부러진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재부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은란이 과열되고 일각에서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홍부총리를 감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상당 기간 코로나의 종식이 없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며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방역의 우수성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우수한 지표가 하루하루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서울 지지율, 국민의힘 35.2%·민주 25.7%...부울경도 국민의힘 우세

리얼미터 여론조사

4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과 부산 권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3%포인트 상승한 35.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7.8%포인트 하락한 25.7%를 나타냈다.

이로써 양당의 서울지역 지지율 격차는 9.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벗어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포인트 상승한 39.6%, 민주당 지지율은 9.3%포인트 하락한 24.4%를 각각 나타냈다.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전국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상승한 31.8%, 민주당은 1.5%포인트 하락한 30.9%로 각각 집계됐다. 그밖에 국민의당 6.5%,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8% 순이었다.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하락한 39.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5%포인트 오른 56.3%다. 모름·무응답은 4.4%다. 긍·부정 평가간 차이는 17.0%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긍정 평가는 호남(8.4%포인트 ↑), 60대(2.7%포인트 ↑), 열린민주당 지지층(10.3%포인트 ↑)에서 증가했고 부정 평가는 서울(14.2%포인트 ↑)·PK(10.0%포인트 ↑), 여성(6.7%포인트 ↑), 20대(9.6%포인트 ↑)에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대권 지지율 이재명 25.2% ‘1위 독주’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윤석열 13.4% 이낙연 10.7%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지역의 차기대권 주자 지도에서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지역 만 18세 이상 807명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25.2%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13.4%, 더불어민주당 이

낙연 대표 10.7% 순이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4.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5%), 정세균 국무총리(2.1%)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26.3%, ‘모름·무응답’은 5.6%였다.

이재명 지사는 진보층(42.0%), 민주당 지지층(44.6%),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41.3%)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1.5%),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24.0%)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꼽는 이가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6%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